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석유화학 수출부진 탈출구는?

석유가격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기미를 보였던 석유화학제품 국내수요가 침체되고 수출마저 부진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생산을 감축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이다. 아울러 원화환율마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환차손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PTA는 Polyester 시장 불황과 중국의 생산확대에 따른 재고증가로 이미 감산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성수지는 크리스마스 시즌 및 2001년 봄농사에 대비한 중국수요 증가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수출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중국의 플라스틱 가공기업들이 합성수지 가격하락세에 편승해 수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수출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100%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중국기업들이 가격하락을 기대해 구매를 줄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미국경기가 침체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플라스틱 가공제품 수요가 줄어들어 합성수지 수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경기는 그동안 유레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호황을 누려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기둔화 또는 침체기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 및 Bio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를 바탕으로 불황을 모르던 미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신경제의 거품이 서서히 건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온 나머지 거품이 형성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미국수출에 의지해온 중국의 플라스틱 가공산업이 예전과 같은 호조국면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성수지 수출이 여의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도 1998년말부터 IMF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자위했지만 DJ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구조조정 미흡, 한국인 특유의 「망각증세」 심화와 사적 이기주의의 극단화에 따라 불과 1년만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일부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으로 구조적 불황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이 내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잘못하면 「내우외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강세가 득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원료의 나프타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 원유가 강세에 원화가치 하락까지 겹치면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흰하다. 합성수지 및 합성원료 수출이라도 잘 되면 만회할 수 있겠지만 중국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4/4분기에는, 아니 2000년 전체적으로 적자상태를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석유화학을 비롯한 PTA 생산기업들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중국의 PTA 재고가 과다하게 늘어나 과당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감산을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현대석유화학, LG석유화학, 대한유화 등이 크래커 및 합성수지 생산을 5-20% 감산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석유화학제품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져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석유화학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시장이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었다느니,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가하락을 기대해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다느니 하는 단기적이고 자기편의적인 진단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동률 감

축도 진일보한 대책이기는 하나 판매를 정상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채산성악화를타개하는진정한의미의대책은없는것인가?

<화학저널 2000/12/11>